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 각광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신 거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센터장 김미경)가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지 5년 만에 지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례읍 삼례역로에 있는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00년 8월에 개관했으나 2006년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1층으로 이전했다가 2017년 11월에 옛 삼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지금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오랜 세월 여러 곡절 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센터는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문화공간과 휴식시설을 갖추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4개의 강의실과 북카페, 휴게실, 마추침 공간, 회의실, 목공실 등 단순한 쉼 공간을 넘어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지역문화 발전소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실제로,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만족도가 고공행진을 하는가 하면 출석률도 높게 나오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

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센터가 작년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정규강좌 9개 과목의 수강생 114명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나선 결과 5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만족도는 무려 4.5점을 기록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설된 색소폰 과목은 4.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강사 만족도와 자기개발 만족도는 만점에 가까웠고 출석률도 높게 조사되었다. 오키리나, 난타, 장구 등 악기와 관련된 수업도 만족도 역시 높았으며 출석률은 색소폰, 라인댄스, 노래교실 등 상당수가 90% 이상이었다.

센터는 이런 만족도를 토대로 활기찬 새 봄을 열기 위해 올해 노래교실과 민화, 감성스폰과 상상공작소 등 각종 정규강좌를 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원 모집을 끝내고 지난 7일부터 수업에 들어간 을상반기 강좌 중 토요일에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

로 인기 만점이었다.

지역주민 맞춤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성스폰 체험은 디지털 캔들 만들기, 라탄 미니스탠기 만들기 등 평일에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시설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의집과 협력해 합동 전시회와 발표회를 준비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들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등 새 봄을 앞두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인원이 약간 줄었지만 배움의 열기는 오히려 뜨거운 실정"이라며 "봄을 맞는 마음까지 위축되어 있을 주민들이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행복한 봄을 느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네이버 밴드 '삼례생활문화센터'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익산시,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모 선정

백제왕궁박물관·보석박물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모'에 선정되며 문화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보석박물관이 길척소년활동연구소와 공동 추진한 이번 공모는 올해 ICOM(국제박물관협회) 선정 주제인 '박물관의 힘'을 테마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선한 영향력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는 박물관·미술관 주간(5월 14일~5월 22일)동안 약 4회 '고백다감 박물관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박물관과 신기술 키워드로 진행되며 백제왕궁박물관과 왕궁리유적 그리고 보석박물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RPG 체험 여행으로 구성된다.

/익산=남현봉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 전경.

추후 세부 일정은 백제왕궁박물관·보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의 박물관을 탈피하고,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박물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안청자, 문화역서울284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 초대전시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발생지 부안의 청자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 초대되어 비색청자를 소개한다.

부안청자박물관 '부안관요'은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65일 동안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전국 공예작가 37개 팀이 초청 되어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독창적인 공예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기획전시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공예인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첫날에는 부안청자의 무형문화재 이은규 사기장의 전통기법의 상감조각시연이 있을 예정이며, 부안관요 도예가 김문식, 강의석, 송승호 작가와 부안도예가협회 임전택, 윤성식 작가의 전통을 계승한 다양한 형태의 비색 청자완이 품소 소규모에 전시되어 마치 900년전 바닷속 보물이 잠들어있는 모습을 연출한 청자완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 외에 전시기간 중 찾아가는 부안청자박물관



관을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도자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청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부안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비색청자를 품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한편 부안청자박물관 '부안관요' 김문식 전문도예가는 "전시를 통하여 고려시대 삼강청자의 발생지 부안을 알리고, 공예기관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과거 신비로운 비색의 특색 있고 독창적인 도자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I 개최

62개국 1680여명 참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하는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이하,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 대회가 3월 14일부터 4월 20일 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는 G2 등급의 태권도 국제대회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국가대표 부문에 45개국 189명, 오픈 부문에 47개국 1,491명 등 62개국 1,680명이 접수했다.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 출전자들이 촬영한 품새 영상을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online-poomsae.com)에 등록하면 예선과 본선, 결선 별로 심판들이 온라인을 통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대회 영상은 채점이 종료되고 일주일 후에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 국가대표 부문 1위에게는 상금 120만원, 오픈 부문의 경우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등 종목별 1위부터 3위까지 상금(120만원~3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오픈 부문의 경우 참가점수와 메달점수를 합산한 종합순위 1위, 2위, 3위에게는 별도의 상금(400만원~100



김종현 경기 위원장(사진 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 및 대진표 추첨을 하고 있다.

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부문 1위부터 8위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G6 등급의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파이널' 대회의 출전권이 부여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1,68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챌린지 대회가 비대면 컨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의 협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대회인 만큼 참가 선수들이 가진 실력과 기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회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기자

전북도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 산림박물관은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2년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산재의 우수성과 활용방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지방비 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산림박물관 제2전시실을 한옥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제2전시실에 전시 중인 전통 대문, 기와, 문살, 공예품 등을 활용, 전시공간을 재구

성하여 한옥의 단아함과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후에 시행되며, 관람객이 많은 가을 단풍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산재의 우수성과 활용 방식을 홍보하고, 박물관 전시실을 내실있게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